

전시명: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  
 전시 기간 2022년 9월 11일 - 2023년 2월 19일  
 장소: 레스닉 파빌리온 (Resnick Pavilion)



작품 관련 사항은 5 페이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2022년 7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LACMA)에서 개최되는 <The Space Between: The Modern in Korean Art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 전시를 통해 이 시대 한국 미술계가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그것을 한국의 현실에서 재해석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근대 미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봅니다. 1897년부터 1965년까지 연대순으로 보여주는 이번 전시에서, 대한제국 시대 (1897-1910)와 식민지 시대(1910-45)에 일본을 통해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술과, 6.25 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전후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험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초기의 미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사이의 공간> 기획전에는 유화, 사진 및 조각을 비롯하여 서양으로부터 수용한 새로운 양식이 반영된 88명 화가의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국 예술 부문 큐레이터인 버지니아 문 (Virginia Moon) 박사가 기획한 <사이의 공간> 전시는 '더 현대 프로젝트: 한국 미술사 연구' 프로그램의 두 번째 전시회로서 연구, 출판, 및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에 대한 세계적 관점의 탐구입니다. 한국 미술사 연구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현대자동차가 LACMA와 체결한 10년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이 전시는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MMCA)과 공동 주최됩니다.

"<사이의 공간> 전시는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조명해보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새로운 창작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LACMA CEO 이자 왈리스 아넨버그 디렉터인 마이클 고반이 말했습니다. "해외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미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여준 현대자동차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근대 미술의 발전을 가져온 영향들을 살펴 봄으로써 한국 근대 미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버지니아 문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 전시는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던 모든 매체들을 총망라하여 한국의 근대 미술에 관한 발표 자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는 이 작품들은 이 시대에 한국이 직면한 엄청난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한국 미술계가 전통의 틀을 깨고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였는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LACMA 와 맺은 다양한 파트너십 중에서 한국 미술사 연구 프로그램은 세계인이 한국 미술을 다시 돌아보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의 공간: 한국 미술의 근대> 전시는 탐구된 적이 없는 근대성의 측면을 조명하고, 새로운 체계 안에서 재구성하여 한국 근대 미술에 대한 유익한 담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 전시 구성

한국이 20 세기 초에 마지못해 근대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과 민족 언어와 문화 말살 시도에 대응하여 새로운 민족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미술계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영향으로 한국 미술에 대한 해석과 실험의 시기를 맞이하며 한국 미술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Space Between (사이의 공간)> 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은 한국의 근대 미술이 일본 식민지 시대 (1910-45) 와 한국전쟁(1950-53)의 상처 깊은 시련과 함께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그리고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격변의 시기에 창작된 이 작품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은 하되 그것에 굴하지 않으려는 결의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이의 공간’ 전시는 5 개 전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근대와의 조우

이 구역의 그림과 사진들은 한국이 바깥 세계와 접하면서 내키지는 않지만 근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 가는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1897 년, 조선왕조의 마지막 두 왕이 근대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국으로 전환하고 그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황실 가족의 초대로 일본 사진사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진술이 한국에 들어와 전통 수묵 화가들의 작품활동에 영향을 주었는데, 작가 김은호의 순종 어진(초상)(1923)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미완성의 초상화 초본은 1909 년경의 사진을 모사한 어진으로서, 이것이 인물의 극사실적 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 근대적 반응

한국의 식민지 시대(1910-45) 동안, 전통 미술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미술 교육과 새로운 양식은 일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는 예술가들은 서양의 회화와 조각 양식을 배워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유화 매체와 다른 기법들을 동료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전시구역에서는 오일과 같은 낯선 재료와 학문적 스타일의 회화를 접한 당대 미술가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화상과 새로운 구도 양식은 인물과 군상을 묘사하는 방법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한국의 초기 사진은, 당시에는 예술 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한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렌즈를 통해 담으려고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시련을 통해 목적을 가진 민족주의와 행동주의 의식이 등장했습니다.

## 모던의 모멘텀

예술적 창조에 있어서 모멘텀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대표하는 이 전시구역의 작품들은 (근대기에 도입된 모든 매체를 포함하는) 외부의 영향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시험 삼아 해보던 것을 더 자신 있게 자신들의 예술에 자신의 생각을 더 과감하게 불어넣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도입된 다양한 매체들은 근대 예술의 사조가 매체와 상관없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당대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줍니다.

## 신여성의 등장

근대기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처음에는 여성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페미니즘의 등장인데, 다음에는 자식들을 교육시켜, 나아가 미래 세대의 힘을 키우려는 희망에서 남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교육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었고, 여성의 외모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신여성의 외모는 작가 신낙균의 1930년 최승희의 사진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승희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여성 무용가로 일생을 보낸 인물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혁신적 측면이 남성 중심의 유교 기반 사회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쇄된 사진입니다.

## 현대로의 발전

1957년에 한 예술가 단체가, 예술가들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었던, 정부가 지원하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국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국전이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고 식민지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며 시청 건너편에 있는 덕수궁 담벽에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 예술가들이 반기를 든 동기가 되었던 독립적이고 강한 의지의 신념은 그들이 의도한 현대화의 특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 이 전시구역의 작품들은 이전의 예술적 발전을 토대로 한 변화를 보여주고 한국 예술이 나아갈 길을 확장하려는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근대기의 새로운 예술적 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현대까지 계속되어 정체성의 뿌리와 민족주의, 후식민지주의, 그리고 족히 20 세기 말까지 현대성을 엮어냈습니다.

### 전시 도록

전시회에서는 LACMA 와 델모니코 북스/D.A.P.가 출간하고, 버지니아 문이 편집한, 김인혜, 강민지, 권행가, 목수현, 김이순, 조앤 기, 버지니아 문이 쓴 에세이와 함께 삽화가 실린 전시 도록이 제공됩니다.

### LACMA 더 현대 프로젝트: 한국 미술사 연구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 전시는 더 현대 프로젝트: 한국 미술사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두 번째 전시회입니다. 2015 년에 LACMA 와 현대자동차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 (아트 + 테크놀로지, Art + Technology)과 한국 미술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LACMA 의 연혁상 가장 장기의 대규모 기업 파트너십입니다. 더 현대 프로젝트는 '한국 미술사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전통 미술에서 현대 미술까지 아우르는 3 회의 전시 및 미술관 출판물을 지원합니다. '한국 미술사 연구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세계적인 규모로 탐구된 바 없는 한국 미술에 대한 전시, 프로그램, 출판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과 연구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와의 파트너십은 LACMA 의 Art + Technology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 협력:

이번 전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과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주최한 전시입니다.

### 파트너십



이번 전시는 연구, 출판, 전시를 통해 한국의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탐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 추진하는 '더 현대 프로젝트: 한국 미술사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삼성문화재단에서 전시 연구 및 출판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한미뮤즈 (Korean American Muse) 에서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LACMA 의 모든 전시는 LACMA 전시 기금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요 연례 후원자: Meredith & David Kaplan, Kevin J. Chen 의 후한 연례 기부, Louise & Brad Edgerton, Edgerton Foundation, Emily & Teddy Greenspan, Mary & Daniel James, Justin Lubliner, Jennifer & Mark McCormick,

Kelsey Lee Offield, Jen Rubio & Stewart Butterfield, Lenore & Richard Wayne, Marietta Wu & Thomas Yamamoto.

## LACMA 소개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LACMA는 전 세계 6천 년 예술적 표현을 조명하는 147,000 점 이상의 수집 규모를 갖춘 미 서부 최대의 미술관입니다. 다양한 예술 역사를 전시하고자 헌신하는 LACMA는 지역의 풍성한 문화 유산과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나오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으로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해석합니다. LACMA의 실험 정신은 예술가, 기술자, 선구적 사상가들과 함께하는 작업뿐 아니라, 수집품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척자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관람객을 참여시키기 위한 지역적, 전국적, 세계적 파트너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아트 프로젝트 소개

현대자동차는 201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MMCA), 영국 테이트 미술관(Tate) 및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LACMA) 등 글로벌 뮤지엄과 장기 파트너십 기반의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20 회, 21 회 시드니 비엔날레 및 56 회부터 59 회까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Hyundai Tate Research Centre: Transnational)을 통해 전 지구적 관점의 연구와 협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Bloomberg)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트 프로젝트는 [artlab.hyundai.com](http://artlab.hyundai.com) 또는 @hyundai.artlab #HyundaiArtlab 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이미지 설명:** 김은호, '순종 어진'(Portrait of King Sunjong), 1923,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김은호 생가 터, 사진 ©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민충식(閔忠植), '금강산 일만이천봉'(Twelve Thousand Peaks of Mount Geumgang), 1910년대(2002년 인쇄), 사진컬렉션 지평, 서울 한국이미지언어연구소, © 민충식 생가 터, 사진컬렉션 지평 디지털 제공; 신낙균, '최승희 사진'(Photograph of Choi Seunghui), 1930, 사진컬렉션 지평, 서울 한국이미지언어연구소, © 신낙균 생가 터, 사진컬렉션 지평 디지털 제공; 곽인식, '작품'(Work), 1962,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 곽인식 생가 터, 사진 ©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위치:** 590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36. [Lacma.org](http://Lacma.org)

**언론 홍보 문의:** [press@lacma.org](mailto:press@lacma.org)

**LACMA의 소식을 접하세요**



@lacma